

/지역 단신/

담양 수북서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인들이 함께 모여 친환경농업을 체험하고 올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담양군은 대표적 친환경농업 단지인 대덕면 시목마을과 수북면 황금마을에서 오는 24일 광주지역 생활협동조합원과 농업인들이 참석, 각종 친환경농업 체험과 전통놀이 행사를 갖겠다고 21일 밝혔다.
대덕면 시목마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고구마순심기 농사체험을 비롯해 우리 콩을 이용한 두부 만들기, 닭몰이 게임, 물총 만들기, 대나무 개고다리 경주, 떡메치기 한마당 놀이를 갖는다.

/담양=차재희기자 jhwha@

고흥 신금선착장 새우 300만마리 방류

고흥군은 20일 봉래면 신금선착장에서 1~2cm크기의 어린 새우 300만 마리를 방류했다. (사진) 이번 방류한 어린 새우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전남도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생산해 무상 분양한 것으로 방류 1~2년 후면 15cm 이상으로 자라 상품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새우는 '대하(大蝦)'라고도 부르며 볼·어물에 알은 진흙바닥에 알을 낳은 뒤 가을에 깊은 곳으로 이동, 겨울을 나며 서·남해 연안의 중요한 수산자원이다.
또 고단백 저칼로리의 고급 어종으로 비교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어가소득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대성수기자 dss@

전남 주요 피서지 '119수상구조대'

전남지역 주요 피서지에 '119 도민수상구조대'가 운영된다.
전남도소방본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도내 주요 유원지, 해수욕장, 계곡 등 33곳에 '119 도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해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수상안전교육, 미아보호, 주변 관광지 안내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각 소방서별로 수상안전교실을 운영해 피서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 물놀이 안전수칙 등 수난사고 예방법 등을 교육하고 기초 응급약품도 비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오서방 해초 붕어빵’ 맛 보셨나요?

‘오서방 해초(海草) 붕어빵’ 맛 보셨나요?
50대 장애인인 완도산 해초류를 활용해 특허까지 받은 새로운 웰빙 붕어빵이 지역명물로 인기를 끌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완도군 완도읍 향만터미널 부근에서 붕어빵 노점을 하는 오경은(50·완도읍 남향리)씨.

완도산 해초류 이용 웰빙 붕어빵

오씨는 어릴적 병 후유증으로 왼쪽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15년 전부터 리어카 붕어빵 노점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그러나 오씨는 노점을 하면서도 좀 더 맛있고, 건강에 좋은 붕어빵을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해오다, 지난해 여러번의 시행착오 끝에 '건강의 섬' 완도의 청정 해초류를 이용한 웰빙 붕어빵을 개발했다. 오씨의 웰빙 붕어빵은 완도에서 대량 생산되는 청정 다시마, 미역, 김, 툄 등 해초류를 분말로 만들어 밀가루와 배합해 만든 것으로 지난해 6월 '오서방 해초(海草) 붕어빵'이란 상품명으로 대전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지난달 8일 등록증을 전달받았다. 오씨의 '해초 붕어빵'은 상표 등록 간판을 걸고 장사를 시작하자 완도~제주간 카페리를 이용하는 제주 수학여행단 학생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히 맛이 좋은 웰빙 붕어빵'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완도 명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오씨는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은 붕어빵을 만들수 있을까 고민하다 완도 수산물이 전국제일이라는 것에 착안해 시작했다"며 "비록 붕어빵 노점이지만 조금이나마 완도의 청정 수산물을 웰빙 붕어빵을 통해 널리 알리는데 보탬을 느낀다"고 말했다. 해초 붕어빵을 맛본 관광객 김모(48·서울)씨는 "장애인인데도 굴리지 않고 자기 삶을 개척하며 열심히



다시마 등 완도산 해초를 이용해 웰빙 붕어빵을 개발한 오경은씨.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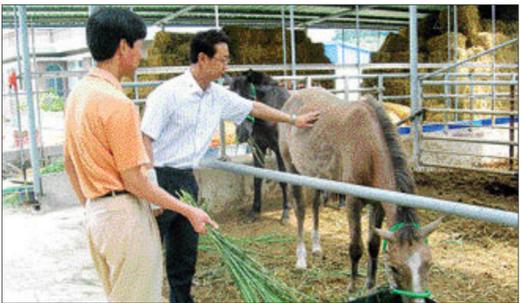
살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다"며 "작은 붕어빵 한 개라도 팔아주고 격려해,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강진~제주 고대밭길 재현 기증 조랑말 2마리 사육장소 놓고 때아닌 고민

마량 주민 "우리가 키워야" 그 "목장 등 전문장소 고려"

"우리 마을에서 키워야 합니다"
강진군이 제주에서 기증받은 조랑말의 사육장소를 놓고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때아닌 고민을 하고 있다.
고민거리의 대상은 지난 9일 강진마량~제주간 고대밭길을 재현하는 행사에서 군에 기증된 탑돌이(2년생·숫말)와 탑승이(3년생·암말) 등 조랑말 2마리.
수천년전부터 통나무 때때로 제주~강진을 오갔던 선조들과 함께 제주말이 육지 첫 발을 내디뎠던 마량과의 인연으로 제주마 생산자협회가 기증했다. 마량항(馬良港)은 고려와 조선시대 제주도에서 공출한 제주마(濟州馬)가 육지에 도착하는 종착지로 지금도 숙마(宿馬)와 신마(新馬) 마을 등 관련 지명이 남아 있다.

문제는 이런 역사성과 인연 등을 감안, 마량면 숙마마을 등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에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하지만 군은 목장이나 유관학교 등 전문적인 장소에서 사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농축산업 전문으로 초지까지 확보하고 있는 지역 학교(강진농고)에서 사료비 등을 자체 부담하며 키우겠다는 뜻을 전하고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도 마을에 맡길 경우 연간 1천만원 가량 소요될 사육비 지원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군 관계자는 "역사성을 감안하면 마을 주민에게 맡겨야 할 것 같고 예산 등 현실을 생각하면 학교에서 키우는 것이 좋아 이래저래 고민이 적지 않다"며 "일단 주민들을 설득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군이 제주~강진간 고대밭길 재현행사에서 제주마 생산자협회로부터 기증받은 말을 마량면 주민들이 한 축사에서 돌보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중 상하이 항만 당국 입국 승인 지연 목포항 출항 카페리호 하루 늦게 접안

중국 상하이(上海)항 앞바다에서 발이 묶였던 목포항 출항 카페리호 '케이씨 브리지'호가 하루만에 접안을 끝냈다. 목포 포시즌즈크루즈사는 21일 "중국 항만 당국으로부터 입국 승인이 나 이날 오후 카페리호를 부두에 접안시켜 관광객 226명을 입국 시켰다"고 밝혔다. 승객들은 3년만에 목포항을 재출항한 1만7천급 케이씨 브리지호를 타고 지난 19일 출국, 20일 오전 10시께 상하이항 앞바다에 도착했지만 중국 항만 당국의 입국승인 지연으로 하루동안 배에 갇혀있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상하이항을 출발

할 예정이던 카페리호는 일정을 하루 늦춰 22일 오전 출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포항에서 월·금요일, 상하이항에서 수·일요일에 각각 출항하는 이 카페리호는 승객 600명, 20피트 컨테이너 92개를 실을 수 있으며 속력은 27노트로 상하이까지 편도 16시간 걸린다. 한편, 2002년 11월 첫 취항한 이 항로는 승객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2003년 4월 운항이 중단됐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나무로 생활용품 만들어 보세요”

장성 방장산 자연휴양림 '숲사랑 나무교실' 열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성부근)는 장성군 방장산 자연휴양림에서 숲과 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휴양림 이용객이 직접 나무로 생활 소품을 만드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이 행사는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15일간 국립방장산자연휴양림의 '숲사랑 나무교실'에서 열고 있으

며 참가대상은 숙박객과 당일 입장객 등 휴양림 이용객이다. 참가 품목은 목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하고 국립방장산휴양림 인터넷 카페와 숲해설가의 평가를 받아 순위를 결정, 상품과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위험이 따르는 작업이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직원의 도움이 있고 목공구는



무료 제공이며 목재는 구입 원가에 판매된다. 자세한 문의는 국립방장산자연휴양림(전화 061-394-5523)으로 하면 된다. /장성=고재빈기자 jbg@

청자골 울리는 '태~권'

24일부터 전국 초·중·고 태권도대회

청자골 강진군에서 태권도 인구 저변확대와 우수선수 조기 발굴을 위한 제28회 전남교육감기 남녀 초·중·고 태권도 대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강진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남도태권도협회, 강진군태권도협회가 주관하게 되며 1천 1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해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번 대회 11체급 개인전을 우승에게는 메달을, 단체전 우승팀에게는 특별 제작된 청자트로피가 주어진다. 강진군은 이번 대회의 성공개회를 위해 홍보에 주력함은 물론 자원봉사 및 의료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용봉동 M타워 분양 및 임대

대중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M타워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된 대규모 주택 단지이다. 용봉동 M타워는 용봉동 1차 주택지구에 위치하며, 33층 규모의 현대적인 건축물을 자랑한다. M타워는 분양 및 임대两种方式로 운영된다. 분양 가격은 1억 5천만 원부터 시작되며, 임대료는 월 100만 원이다. M타워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학교, 상점, 편의시설이 많이 있다. M타워는 용봉동 1차 주택지구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주택 단지이다. M타워는 용봉동 1차 주택지구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주택 단지이다. M타워는 용봉동 1차 주택지구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주택 단지이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세심함 속에는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 있습니다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는 가족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는 실내 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알레르기, 천식, 호흡기 질환을 예방합니다.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소음이 적으며, 유지보수가 쉽습니다.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는 가족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는 실내 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알레르기, 천식, 호흡기 질환을 예방합니다.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소음이 적으며, 유지보수가 쉽습니다.